

김석_한국축구미래

테니스매니아

소개글

김석은 2011년 1월 강원FC에 입단한 프로축구선수다.

2011년 프랑스 명문 FC METZ에 입단하여 2010년 STADE DE REIMS 구단과의 3년 계약만료 후 귀국하였다.

2011년 3월 17일 한국에서의 첫 프로 2군경기에 참여하며 적응중이다.

우리는 10년을 외국서 보낸 한국의 유망주가 귀국 후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한다.

아직 어린 그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재능이 무한히 펼쳐질 때까지, 우리 한국축구의 미래스타를 응원한다.

목차

• 김석 10년 전엔 이랬어요..	4
• 한국축구의 미래로 성장하라 !! 강원FC 김석 프랑스10년의 동영상	6
• 맨유감독 퍼거슨과 강원FC 김석	9
• 축구선수의 인생관리	12
• 축구는 속이는 게임이다 -메시의 골동작	14
• 메시 동영상과 강원FC 김석	16
• 히딩크로부터 온 편지	18
• 아직시오프로구단의 초청_파리공항에서 2007년	21
• 초4학년 축구선수의 FC METZ 테스트 동영상	23
• 30미터 중거리 슛 골인장면 -2010년 아마추어경기에서	25
• 트위스트싸커? 아트싸커? 김석U16 동영상	27
• 김석 프로등록완료 ! 천안fc의 이적동의서 없이 협회구제결정.	29

• 김석 10년 전엔 이랬어요..



2001년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프랑스 명문 FC METZ 팀에 입단한 김석...10년 전 사진..

- 한국축구의 미래로 성장하라 !! 강원FC 김석 프랑스10년의 동영상
-

김석은 1991년생으로 한일 월드컵이 열리기 한해 전인 2001년 10살이 채 안된 나이에 축구 선진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들 가족은 아들의 축구인생 미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니던 직장을 접고 온가족과 함께 유학길에 올랐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 타국으로의 축구 여행!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에게 다가올 수많은 역경과 고통은 예상하지 않은 채, 부모들의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자식의 앞날에 더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그렇게 훌쩍 떠났다. 무모한 결정. 자식을 향해 부모가 할 수 있는 무모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그들은 그렇게 떠났던 것이다.

후회는 없었다. 프랑스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김석은 많은 고통을 인내로 감내하고 축구선수로서 기량은 물론 인간적으로도 성장하였다. FC METZ 에서 4년. 그리고 다시 도전한 STADE DE REIMS에서의 3년 계약 성공 등..

김석은 프로를 바로 앞둔 2010년 말, 한국으로 돌아왔다.

프랑스 9년 동안 희망과 절망의 시간을 온 몸으로 맞이하며 탈락의 아픔과 성장의 기쁨을 함께 맛보았던 그가 한국으로 왔다.

STADE DE REIMS의 최고유망주로 거침없이 달리던 그가, 한국에선 생소한 그가, 유럽 프로 데뷔를 바로 눈 앞에 두고 한국의 강원FC로 돌아왔다. 프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랑스 아마추어신분을 벗어나 한국에서 프로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하는 젊은이에게 큰 기대와 관심이 가득한 박수를 보낸다.

한국축구팬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아이콘이 되길 빌어마지 않으며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고자 합니다. (기사 출처: 스포츠온 2011년 2월호)



**NO. 10, RED SHIRTS, U-16,
STADE DE REIMS F.C., FRANCE**

- 맨유감독 퍼거슨과 강원FC 김석
-

맨유 감독 알렉스 퍼거슨은 명감독이자 독설가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다. 그의 말들은 축구계에 회자된다. "경기의 99%는 선수가 만들고 나머지 1%는 감독이 만든다. 그러나 감독의 1% 없이 100%는 없다." 감독의 리더십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또 10대 유망주들을 데려와 명품으로 만들어 내는 감독으로도 유명하다.

호날두, 나니 등을 데려오면서 한 말이 있다. "나는 이들이 빨리 성숙해지길 원한다"

한편 발롱도르에 뽑히고 싶다는 나니의 희망을 듣고는 일침을 뱉는다. "그는 먼저 맨유에서 계속 성장해야한다(아직 멀었다)." 개인플레이에 치중하는 스타플레이어에게 가차없는 그의 독설은 계속된다. "팀보다 더 중요한 선수는 없다"

지난 17일 목요일 오후 3시 김석은 수원에서 R리그 1차전을 치렀다. 지난 연습경기서 다친 발목 모두 안좋은 상태였다.

그는 팀이 1:2로 뒤지는후반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하여 국내 프로 2군경기에 첫 출전, 몸을 풀었지만 긴장 탓인지 무거워 보였다. 김석은 2번의 코너킥을 모두 올렸고 그 중 1개가 골로 연결되어 2:2 무승부로 끝났다. 프리킥도 도맡아 하였다.

이날 김석은 차가운 날씨속에 왼쪽 공격수로서 출전, 간결한 패스를 원하는 팀 문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이였다.

그가 왼쪽에서 돌파하여 가운데로 찰러준 날카로운 패스를 공격수가 놓쳐 골로 이어지지 못하였을 땐 관중들의 탄식도 들렸다.

이날 김석의 화려한 개인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팀 플레이에 치중하였다.

김석은 감독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자신의 특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언제 드러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퍼거슨의 말처럼 "성숙"한 10대 선수, "강원FC의 팀 명성"을 위해 뛰는 선수, "계속 성장하는" 선수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팬들은...

김석 소개:1991년 9월 9일생. FC METZ,STADE DE REIMS, 프랑스 9년 축구(U-10부터 리저브팀).

2011년 1월 강원FC 입단. 2011년 3월17일(목) R1 수원전 첫출전.



• 축구선수의 인생관리

축구선수의 인생은 통상 10년 안팎이다. 대학졸업 후 프로에 입문하면 23살이고 30초반에 선수생명은 끝난다. 이 기간동안 축구선수는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잘 관리하면 프로선수로서 명예와 돈을 만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짧다. 더군다나 군대를 갔다오는 기간을 빼면 관리기간은 더 줄어든다.

그래서 축구선수들에게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특히 어렸을때는 부모의 조력이 필요하다. 물론 다 자란 성인이 되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특히 짧은 기간에 인생의 획을 긋는 축구선수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2011년 강원FC에 입단하여 적응 중인 김석선수에게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적극 권장해보고 싶다.

2연패후 광주FC와의 경기서 5:0 대승을 거둔 강원FC의 어제 소식은 어둠을 뚫는 햇살같은 기쁨이다.



• 축구는 속이는 게임이다 - 메시의 골동작

축구는 결국 상대방을 속여야 이기는 경기이다.

뻘한 패스나 움직임으로는 골을 넣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기서 선수의 축구지능이 빛을 발한다.

한편 선수의 예측불허 골을 보고 관중들은 열광한다.

예상치 못한 동작과 패스가 곧 골로 연결될 때 그들은 환호한다.

메시나 지단의 골들이 곧잘 예술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축구도 이제 예기치 않은 골, 창의적인 축구, 예술적인 축구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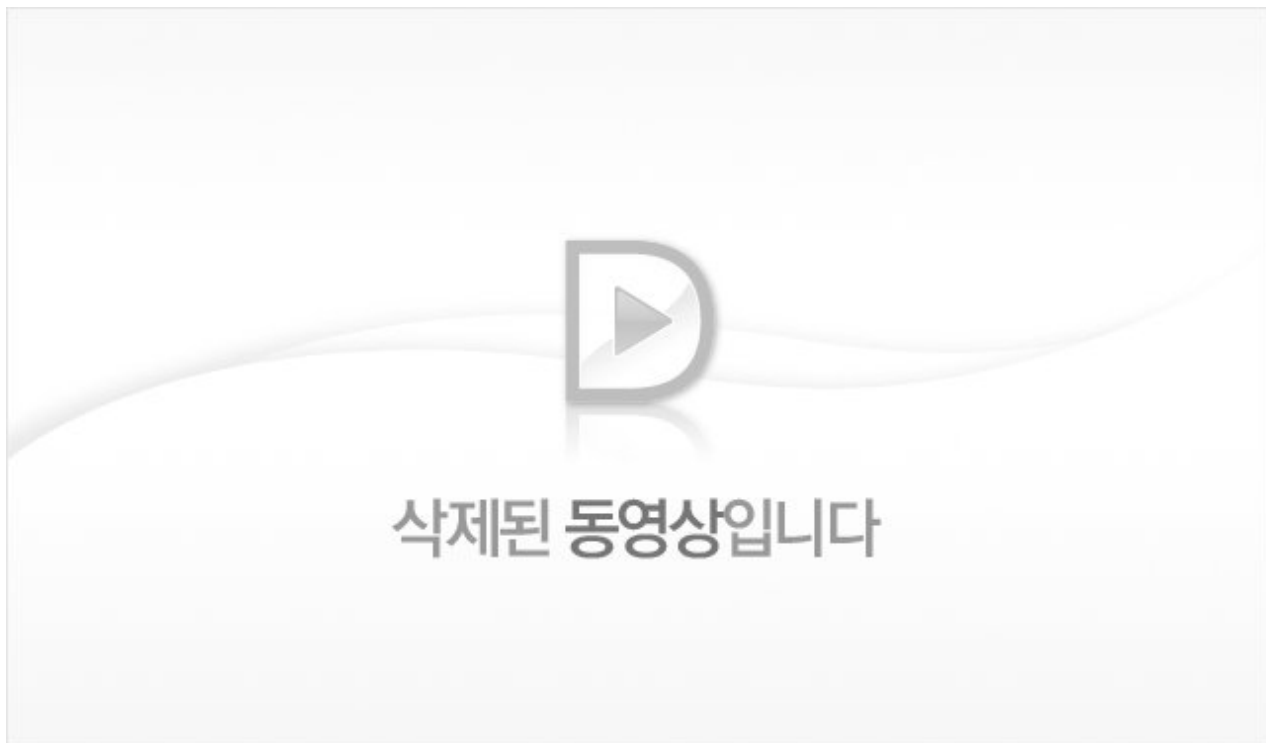
한국축구 관중들의 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다. 눈이 높아진 그들은 K리그의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창의적인 선수를 기다린다. 연습 때 정해진 패턴이 실제경기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창의적인 선수 양성은 특히 유소년 지도자에게 큰 역할이 있다고 강조되기도 한다.

프랑스 유소년 9년을 마치고 돌아온 19살의 강원FC NO 37 김석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댓글에서처럼 그는 차기 월드컵에 지켜보아야 할 한국축구의 미래이다.



• 메시 동영상과 강원FC 김석

한국에서는 메시와 같은 드리블러는 키울 수 없다는 자조적인 글을 가끔 본다.
답을 알고 있지만 왜그럴까? 한숨을 다시 쉬면서 동영상을 들여다 본다.

동영상 속의 메시는 혼자 골을 넣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공을 가지지 않은 주위 동료들의 상대 수비 발란스를 깨뜨리는 움직임이 없다면 메시가 쉽게 득점할 수는 없다.

축구는 상대적 게임이다. 메시는 상대방과 동료들의 움직임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순간적으로 활용한다.

축구는 속이는 게임이다. 메시는 수비수들을 사소한 동작으로 속인다. 심지어 그의 동료들조차 속이는 동작으로 골을 넣는다.

그의 예측불허의 골이 그래서 쉽게 느껴지는것이다.

한국 축구미래 김석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기대해 본다.



• 히딩크로부터 온 편지

〈히딩크로부터 온 편지〉

내가 처음 자네를 만났을 때는 아직 어린 선수였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우수한 자질을 지녔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더군.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눈부시게 성장했고 날이 갈수록 자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지.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에 합류한 자네는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당연한 일이었어.

모든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으니까.

낯선 나라에 알지 못하는 언어, 생소한 문화, 몸에 배지 않은 훈련방식...

무엇보다 3년 이상 쉬지 않고 경기를 해온 탓에 몸에 무리가 간 것이 자네를 더욱 힘들게 했지.

오른쪽 무릎부상으로 고통당하면서도 기술진이나 의료진에게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

역시 박지성다운 행동이었다고나 할까?

묵묵히, 아무런 불평없이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는 것 말이야.

클럽 안팎에서 들려오는 자네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도 적지 않았어.

하지만 자네는 해냈어.

시련의 시기를 견뎌내고 마침내 PSV에서 가장 특별한 선수, 가장 사랑받는선수 가운데

하나로 우뚝섰어.

PSV서포터들과 에인트호벤 시민들도 열광했지.

자네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 PSV를 떠날 때,

팀의 동료들과 팬들은 그 동안 온몸을 던져 보여준 투혼과 헌신에 뜨거운 신뢰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네.

앞으로도 묵묵히 아무런 불평없이 최선을 다해 뛰는 그 박지성을 기대하겠네.

박지성 자서전 "멈추지 않는 도전"의 부록에 실린 글입니다.

갓 스무살이 안된, 아직 젊은 그대 김석 선수에게도 시련 끝에 영광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아직시오프로구단의 초청_파리공항에서 2007년

2007년 여름 아직시오 프로구단의 초청장을 받고 파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의 김석. 일주일간의 아직시오 테스트에서 "유사이래 테스트 온 선수 중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으나 15세의 김석은 마지막날 프로2군팀과의 경기서 3달간 깁스를 해야하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만다. 그는 아직시오가 맘에 많이 들었다.



- 초4학년 축구선수의 FC METZ 테스트 동영상
-

2001년 한국 초등학교 4학년의 프랑스 FC METZ 구단 테스트 통과할 때의 동영상.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출전을 목표로 2001년 프랑스로 건너간 9살 김석.

그 후로 10년이 흘렀다.

과연 한국 축구팬들은 9년 만에 한국 컴백한 김석의 기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는 한국 스타일과는 과연 맞을까? 맞지 않을까?
팬들은 궁금하다. 아직까지는 연습경기에서 계속 골을 넣고 있어 조심스럽게 기대도 해 본다.
3월에는 아트싸커를 경기장에서 볼수 있겠지.

무엇보다도 김석을 아끼는 팬들은 그가 부상 없이 올 한 시즌을 잘 보내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 30미터 중거리 슛 골인장면 -2010년 아마추어경기에서

김석은 2-3명은 쉽게 돌파한다. 하지만 슈팅력도 이에 못지 않다. 슛 동작시 키포인트는 발목 고정이다.

발목이 고정되어야만 정확성과 스피드를 최고치로 올릴 수 있다.김석은 보통선수들보다 2-3배 강한 발목을 가진 것으로 검사 결과 나온 적이 있다.

이 골이 아마추어와의 경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김석의 능력에 대해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김석은 이러한 중거리 골을 향후 프로경기나 국제경기서도 보여주어야만 한다. 진정 캐논 슈터로서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을 받으려면...



• 트위스트싸커? 아트싸커? 김석U16 동영상

김석은 좌우 발란스가 좋아 몸을 많이 흔들면서 수비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마치 춤을 추는듯한 이 동작은 보는 팬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
16세 때 개인 돌파하는 장면. 이 돌파 후 센터링 -어시스트로 이어짐.팀은 3:4로 역전 때.



- 김석 프로등록완료 ! 천안fc의 이적동의서 없이 협회구제결정.
-

김석 프로등록완료 ! 천안fc의 이적동의서 없이 협회구제결정.

2011.03.12 19:36

강원fc 김석이 프로축구연맹에 선수등록되었다고 한다.

3월 12일자 강원fc 서포터즈 나르샤에 따르면 김석은 일본에서 재영입한 마사선수와 함께 등록된 것 같다.

김석은 대한축구협회 구제결정에 따라 천안fc의 이적동의서 없이 프로선수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

김석이 2011년 강원의 6강 진출의 주춧돌이 되길 다시한번 빌어 마지않는다. 김석 화이팅 !!! 강원fc 화이팅 !!!!



김석_한국축구미래

블로그

한국축구미래 김석 팬카페

<http://blog.daum.net/mozirihunter>

저자

테니스매니아

발행일

2011.03.18 19:25:39

 **블로그**